

사우디, 2005년도 FDI 95% 증가

- 2005년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대비 95% 증가한 81억 1천만달러(2004년 41억 6천만달러)에 달하였음.
- 국가별로는 일본이 23억불로 1위를 기록하였고 UAE, 바레인, 미국순이었으며, 투자 누계액 기준으로는 2005년말 현재 미국, 일본, UAE, 네덜란드 순임.

< 사우디 외국인직접투자액 누계(2005년말 기준) >

순위	국별	프로젝트수	FDI(백만SAR)	FDI(백만\$)
1	미국	265	35,341	9,424
2	일본	35	17,154	4,575
3	UAE	85	11,677	3,114
4	네덜란드	48	4,870	1,299
5	쿠웨이트	101	3,162	843
6	영국	128	2,291	611
7	바레인	72	2,280	608
8	요르단	349	2,211	589
9	대만	5	1,407	375
10	프랑스	79	1,366	364
11	시리아	336	1,314	350
12	레바논	242	1,287	343
13	스위스	46	1,195	319
14	이태리	34	1,137	303
15	독일	90	1,057	282
기타			9,951	2,654
계			97,700	26,053

- 2005년도 FDI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 고유가에 따라 풍부해진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 플랜트 프로젝트 발주가 크게 확대되면서 발주방식도 일정부분 투자유치를 통한 방식으로 변경하는 한편,
 - 사우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과 함께 2005년 12월 사우디의 WTO가입을 계기로 금융, 보험 등 서비스 시장개방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이와 같은 투자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오일머니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중동시장진출 확대로 2006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사우디는 과거 70년대의 고유가 시대와는 달리 석유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하여 제조업 및 산업, 각종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투자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자료제공: 두바이 사무소)

문의: 전문연구원 차경진 (☎3779-6686)
E-mail : chakj@koreaexim.go.kr